



개강 연기에 따른 총장님 말씀

대전보건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대학은 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4월 11일까지 온라인 재택수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3일 대면수업을 일주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27%가 20대이며,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면수업일 연기 재권고와 우리 대학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재택수업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찬성 51% / 반대 43%)를 통하여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면수업으로 인한 접촉과 그로 인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 재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면수업 시작일을 기존 4월 13일(월)에서 5월 4일(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수업 일정의 연기는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고 불편한 일이지만 재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재택수업 역시 많은 우려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재택수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수업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과 인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의 주인은 학생들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수업이 시작되는 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등교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재학생들을 응원하며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이강오

코로나 대응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4월 20일(금)부터 5월 5일(금)까지 총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 대면수업(비대면 온라인 재택수업 포함) 실시 등교일이 5월 6일(수)로 연기됐다. 이론(전공 및 교양) 및 상담 교과목은 비대면 온라인 재택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실험·실습 교과목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대면수업 실시한다. 대면수업은 일정한 선행조치하에 실시하게 되며 동일 수업 2개 강의실 또는 2개 시간표 사용 등을 통한 수강인원을 조정한다. 좌석 간격(1~2m) 조정, 사전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철저한 방역 등의 조치를 선행 후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선 기자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종강일 변경

지난 4월 28일(화), 우리 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재택수업을 연장하고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종강일이 기존 6월 26일(금)에서 7월 24일(금)로 변경됐으며, 예정됐던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2학기 개강이 9월 2일(월)로 2주 연기됐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재택수업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으며, 자세한 등교일 및 학사일정은 우리 대학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선민 기자

INDEX

- | | | | |
|----|------------------|----|------------------------|
| 01 | 개강 연기에 따른 총장님 말씀 | 05 | 자가격리, 이젠 의무입니다 |
| 02 | 2020학년도 학사일정 변경 | 06 | <칼럼> 안일한 처벌이 낳은 악의 연대기 |
| 03 | 신문방송국 신입국원 연장 모집 | 08 | <특집> 그럼에도 봄은 돌아온다 |
| 04 | 하이바이 싸강 | | |

2020년 퇴직 교원 정부 포상 및 명예교수 위촉장 수여식



지난 3월 30일(월), 9동 2층 부속실에서 퇴직 교원 정부 포상 및 명예교수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례지도과 양무석 교수와 치기공과 현종구 교수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또한, 간호학과 송례현 교수는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으며, 세 교수 모두 우리 대학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오다영 기자

2020년 3월 법인 및 대학 교직원 인사 발령



■ 신규임용 교수 명단

2020년 3월 1일

치기공과	임중재
물리치료과	한슬기
유아교육과	최유경
교양교육원	박경숙
간호학과	박세연
임상병리과	김성희

240호 정정보도

지난 3월 16일에 발행된 240호 12면의 ‘2019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센터 신문방송국 결산 공고’ 중 신문방송국 방송비 수입·지출 결산에서 지출 총액 수치가 15,715,932로 잘못 보도된 바 있습니다. 15,175,932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경

구분	기간	이론과목(전공 및 교양)	실험/실습/실기과목
4~7주	4.6(월)~5.1(금) [4주간]	비대면 온라인 재택수업	자율운영 ① 재택수업(비대면온라인수업) ② 휴강(대면이후보강)
중간고사	중간고사 미 실시		
학생 등교일	5.6(수)	대면수업 시작	
8~15주	5.6(수)~6.26(금) [8주간]	비대면 온라인 재택수업	대면 수업
기말고사	6.22(월)~7.24(금)	교과목별 실시기간 상이	
16~19주	6.29(월)~7.24(금) [4주간]	수업 없음	보강
하계방학	7.27(월)~9.4(금) [6주간]	하계방학	
2학기 개강	9.7(월)	2주 연기	

대전보건대학교 방역 현황



우리 대학 관리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목)과 4월 10일(금), 이틀에 걸쳐 전체소독, 교내 화장실 비누봉 추가 설치 및 세면대 옆 화장지 케이스를 설치했으며 생활관은 매일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공용장소 등의 소독을 실시한다. 1학기 내 2주 1회로 총 5회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2020학년도 대면 수업 시 학생 행동 지침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면 수업 시 학생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 행동 지침은 학교 출발 전, 학교에서, 수업 종료 후, 학생 자가 격리 시로 나뉜다. 학교 출발 전, 학교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수업 시 강의실 출입문 및 창문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교내·외 식당 이용 시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하고, 배달 음식은 이용 금지이다. 나머지 지침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다영 기자

2020년 신문방송국 정국원 각오

■ 신문사

2020 신문사,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들을 위한 신문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편집장/오다영

이번년도부터 정기자가 된 이현선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양과 질이 좋은 기사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카드뉴스로 여러분에게 또 새롭게 다가가고자 하니 신문사 페이스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홍보)부장/이현선

■ 방송국

개강이 미뤄지면서 저희 방송도 여러분께 들려 드릴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청운인 여러분께 건강하고 즐거운 방송을 들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실무국장/김수지

안주 준비해 두세요. 다들 제 목소리에 취할 거니까요. ^^ 아나운서부장/김도희

한창 힘든 시기에 좋은 음악과 방송 주제로 청운인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부장/이승형

신문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취재부장/김기중

내가 쓰는 기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기자, 학생들의 눈을 밝혀주는 기자, 알차고 진실된 기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부장/장선민

2020년에도 공종과 못지않은 좋은 정보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 ^o^! 정국원/신지은

학교 오는 아침길에는 오늘 하루도 힘찬 응원과 즐겁게, 집에 가는 저녁길에는 수고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하루하루가 기분좋은 날이 될 수 있게! 저희 신문방송국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원/장연철

학교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국원/강하영

신문방송국 신입국원 연장 모집

www.hit.ac.kr
HIT

HIT 신문방송국
2020 수습기자 & 수습국원 모집

당신에게 귀 기울이다

2020

선발대상 20학번 신입생
총 0명
서류지원: 3월 30일(월) ~
면: 4월 1일(화) ~

모집기간

활동혜택 및 지원

- 장학금 지급
- 일고로 및 활동비 지급
- 봉사활동 시간 인정
- 교육과 해외취재 기회 제공

활동내용

- 교내외 행사 취재 및 신문기사 작성
- 일일 라디오방송 기획 및 진행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 청운가요제, 청운문학상 준비 및 진행

신청방법

- 1)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글 지원서 다운로드 >> 서류작성 >> 신문방송국(8416호) 직접 방문하여 제출
- 2) 방문 상담 후 지원 가능

문의 신문방송국 042)670-9590, 042) 670-9029

HIT
대전보건대학교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일반 국민, 고위험군 예방수칙, 유증상자 행동수칙, 코로나19 유행지역 행동수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세한 수칙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수위를 고강도에서 완화된 형태로 낮추었다. 4대집단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권고를 운영제한권고로 변경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현선 기자

HiT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디지털신문입니다



당신에게 귀 기울이다, HiT 신문방송국! 디지털신문 전면 전환

신문방송국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유일한 언론기관으로서 학내의 소식을 전달 및 여론 수렴 등 대학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학내외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내용을 꾸리기 위하여 6월 발행 예정인 242호부터 전면 디지털신문으로 전환됩니다. 디지털신문은 기존 배포대의 QR코드, 대전보건대학교 홈페이지, HiT 신문방송국 SNS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수납금으로 이루어지는 신문방송국, 많은 응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국제교류원 프로그램 안내

I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1. Level-up 프로그램

- 방과 후 외국어 집중교육(18:30~20:30, 주 4회-월,화,수,목)
- 영어회화 및 TOEIC(RC/LC) 5월 11일 개강 예정
- 9동 지하1층 국제교류원 글로벌 강의실

2. Language Camp

- 방학 중 집중 외국어 교육(소규모 분반)
- 하/동계 방학 중 4주간 운영
(자세한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통해 공지)

3. International Coffee Hour

- 원어민 교수님과 주제별 프리토킹
- 매주 월요일 17:00~18:00 영어
수요일 17:00~18:00 중국어
9동 1층 국제교류원
- ★ Level-up / Language Camp 수료자에 한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자격 부여

II 해외취업 프로그램

1. 해외취업 아카데미 및 캠프

- 해외취업 준비를 위한 여학특강/이문화 교육/자격증 교육
- 해외취업캠프 연계
- 취업예정국가별 이력서 작성 및 면접특강
- 신청시기: 8월 말

2. 국내의 취업 박람회 현장학습

- KOTRA 및 국내의 산업체 주관 취업박람회 참석
- 해외취업을 위한 현지 동향 및 정보 습득

3. 해외취업 자격증 프로그램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연계 해외취업 과정
- 홍콩/일본/호주 등 워킹홀리데이 비자 운영국 취업 지원
- 국외 어학교육 및 자격증 교육비 지원
- 총 연수비의 최대 70% 지원
- 신청시기: 11월 중
- 해외취업 아카데미 수료자에 한함

III 해외연수 프로그램

1. HIT the World

- 하계 방학 중 4~6주 해외 현장학습/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 파견국가: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등
- 총 연수비 최대 70% 지원, 자기부담금 발생
- 신청시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내배부 포스터 참조
- 교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함

2.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학기 중 16주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 4주 국내 어학교육+8주 현지 어학교육
+8주 해외산업체 현장실습
- 중간고사 응시 후 출국하여 최대 24학점 인정
- 신청시기: 현재 모집 중(~4/29)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일정 등 변동 가능성 있음

하이바이 싸강

싸강

: 온라인 재택 수업을 편하게 지칭하여 부르는 단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재택 근무, 재택강의 등이 진행됐다. 초중고 개학 연기와 더불어 대학들도 잇따라 대면 수업, 등교일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재택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생겼으며, 대학별로 다양한 온라인 재택수업 방법이 채택됐다. 우리 대학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5월 4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녹화된 영상을 LMS(학습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수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된 전례에 없던 온라인 재택수업으로 여러 난감하고 재미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



교수님, 만우절이라 그러시는 거죠?

지난 4월 1일 만우절, 교양 ‘인간과 사회’ 유창영 교수의 상하 반전된 수업 영상이 LMS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학생들은 만우절이니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으며, 노트북과 모니터를 거꾸로 놓고 보기도 하였으며, ‘유창영 교수님 박쥐설’ 이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

교수님, 칠판이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들려요!

갑작스럽게 온라인 재택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이트 서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카메라나 녹음 장비 등으로 인해 문제들이 생겨났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업로드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칠판 등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교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

이렇듯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비대면 수업의 한계와 불편에 대한 여러 목소리도 지속해서 나오는 중이다. 이에 우리 대학 측에서도 여러 차례 온라인 재택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학우가 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져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듣고,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날을 꿈꾼다.

/ 오다영 기자



강아지의 이름은 ‘샤넬라’라고 한다.

학생들이 재택 수업을 받는 것처럼 재택에서 근무하는 교수도 있다. 교양 ‘영어회화’ 콜린 넬슨 교수는 수업 중 자신의 반려 강아지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이에 학생들은 ‘강아지 귀엽다’, ‘나도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몇 번을 봐도 오르지 않는 너

우리 대학의 경우 수업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의 여부를 진도율로 확인하고 있다. 100%가 달성되면 문제가 없지만, 서버가 불안정하거나 지나간 영상을 되감을 경우 진도율이 더는 오르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정 진도율을 넘으면 출석을 인정하는 수업도 있지만, 이러한 출석 인정 기준이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도율 100%가 될 때까지 여러 번 강의를 본다고 한다. 일부러 학생들이 여러 번 강의를 보게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괴담도 나오고 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금기시하면서 극장이나 공연장에 발길이 뚝 끊기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오페라의 유령>의 외국인 배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예술계에선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들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눈 호강, 귀 호강 방구석 콘서트, 극장 대신 LIVE로 생생하게

최근 공연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하지 않는 ‘언택트(untact)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장감은 덜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관객들과 소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아트엠콘서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온라인 릴레이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최형록을 시작으로 5월 25일 비올리스트 김규현의 공연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열리게 된다.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정상급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이 콘서트는 네이버 VLIVE에서 시청 가능하며 채팅으로 아티스트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세종문화회관은 <내 손안에 극장>이라는 타이틀로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였던 공연을 온라인 중계공연으로 공개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5시에는 열혈 건반 ‘더 듀오’, 이어서 5일 오후 5시에는 열혈 건반 2 ‘쇼팽 그리고 쇼팽’이 진행됐다. 5월에도 이러한 문화공연은 계속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sejongpac.or.kr/portal/main/main.do>

랜선으로 보는 미술관의 감동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가 전시장을 둘러보며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학예사 전시 투어 영상이 인기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는 물론, 작가의 인터뷰 영상도 있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싶은 학생이나 작품의 의미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영상이다. 실제로 미술관에 갔을 때의 감동이 그대로 재현된 영상으로 꾸며져 있다. 4월 16일엔 자연을 주제로 한 기획전 ‘수평의 축(Axis of Horizon)’을 온라인생중계로 공개했다.

대전의 미술관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하여 관람객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전 이응노 미술관은 SNS를 통해서 <모바일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미술품 등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2020년 소장품전: 예술가의 방> 인터뷰 영상과 여러 다채로운 영상이 있으며, 그중 전시연계프로그램인 ‘미술관에서 차 한 잔’은 차 한 잔이 미술 작품의 일부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공연·예술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공연은 취소되고, 취소된 공연은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연·예술계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객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이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한 분야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답답해진 마음을 색다른 방구석 문화생활로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 이현선 기자



자가격리, 이젠 의무입니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에서 4박 5일간 여행을 한 이른바 ‘제주도 강남 모녀’ 사건이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도는 모녀와 접촉한 96명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모녀가 방문한 곳은 임시폐업을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지난 3월 30일(월), 제주도는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된 모녀에게 도민 생업에 손해를 끼쳤으며 총 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로부터 자기 자신 지키기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자가격리 위반자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처벌을 강화한 방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전보다 강력해진 법과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강화된 처벌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이에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치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4월 5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처벌을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전자 손목밴드(안심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한해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

1.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에서 지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의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3월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단원을 해고한 건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최초이다.

대구에서 2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백조의 호수’ 공연을 한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를 결정, 당시 모든 단원에게 외부 일정까지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일본은 2월 27일 0시부터 대구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하지만 대구 체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나대한은 입국했고, 이 일은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무단으로 이탈해 군산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이들 3명을 격리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며, 이 사실을 법무부(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해 추방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자는 이들 3명이 고의로 자가격리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다영 기자

제2의 IMF 외환위기?

코로나 경제 펜데믹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대한민국은 이례적인 재난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그 재앙은 단순히 생명의 위협만이 아닌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이 외출을 자제하자 매출에 타격을 입어 음식점, 상점 등이 임시휴업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였다. 실제로 대전시의 노래방과 피시방 1600여 곳은 임시휴업 중이며 이처럼 동네 상권이 무너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기업으로도 이어졌는데,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닌 대기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여행·항공·면세 등의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무급휴직을 시행했고, 이스타항공은 전 직원 중 300명 이내의 인력조정을 예정했으며 하나투어는 SM면세점의 서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구조조정은 위 업계뿐 아닌 전체적인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두산중공업은 희망퇴직 및 휴업을 예정, 롯데쇼핑은 연말까지 점포의 30% 가량을 정리할 것을 예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세계 증권시장이 급등, 급락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제금융연구소(IIF)는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 발표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3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번 위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세계 경제 위기와 국내기업의 침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위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물려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화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 조세감면, 카드 소득 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소비 촉진을 위한 5대 소비 쿠폰제와 대한민국 동행 세일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각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이러한 위기를 순탄하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

轉禍爲福(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 김기중 기자



청
년
정
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탄



구직활동? 내가 도와줄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관련된 여러 일정이 계속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취준생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 시험도 4월, 5월로 미뤄지고 대기업도 상반기 채용을 일단 미루자는 분위기이다. 기업 채용 설명회 행사, 어학(토익, 토플 등) 등 자격증 시험 일정 또한 취소되면서 취준생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참여 대상

- | 연령 : 만 18세~34세
- |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자세한 인정 자격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조)

■ 참여 방법

- ①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 매월 25일까지 웹 & 모바일 / 구직활동계획서 필수
-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우선 선정 : 졸업 후 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 ③ 예비교육 :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진행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 예비교육 동영상 시청하고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불출석/불시청할 경우 탈락처리 되니 꼭 참석/시청하여야 한다.
- ④ 카드 신청 및 발급
- 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자정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구직활동계획서에 적었던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 1가지이다. 제출이 가능한 증빙서류로는 면접 증명서, 학원 수료증, 도서 구매 영수증 등 형식에 제한이 없지만,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를 우선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엔 계획서에 반영된 내용 중 최소 1가지의 활동을 해야 한다. 또, 활동 중 계획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20일 까지 변경할 계획을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미제출과 부실한 작성 시 각 포인트 미지급과 경고 등 같은 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고 한다.

여기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참여 방법이다. 까다로운 조건만큼 넘치는 혜택은 242호 신문에서 계속된다.

/이현선 기자

Culture 기자문화수첩

하루를 마무리하며 맥주 한 잔과 보고픈 드라마

드라마 「멜로가 체질」

이번 호 기자문화수첩은 방영 당시의 시청률은 1.0%대로 저조했지만, 종영 후 ‘넷플릭스’를 통해 역주행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리뷰한다. <스물>, <극한직업> 등을 연출했던 이병헌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여성 버전의 <스물>이다. 한집살이를 하는 서른 살 여자 친구들의 연애, 고민, 일상을 풀어나간다.

<멜로가 체질>은 방영 당시, 주요 공감 타겟층으로 설정했던 20~30대가 TV를 통하여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한계에 봉착하여 흥행에 실패했으나 ‘넷플릭스’라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판삼아 역주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멜로가 체질>의 흥행엔 단순히 ‘넷플릭스’를 만났다는 사실 이상으로 드라마만의 독특한 매력에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 멜로 드라마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멜로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전개되지만 <멜로가 체질>은 달랐다. 등장인물마다 각자의 서사가 있고 그 서사가 일상 속에서 잔잔히 전개된다. 유명한 드라마 PD로 나오는 범수(안재홍)는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연애 앞에서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 또, 한집살이를 하는 세 명의 여자 친구들은 하루의 끝에 꼭 모여 맥주를 마시기도 한다. 이처럼 인물들의 이야기는 ‘현실 연애’, ‘현실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냈다. 등장 인물을 부러워하며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 공감을 하며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는 것은 <멜로가 체질>만의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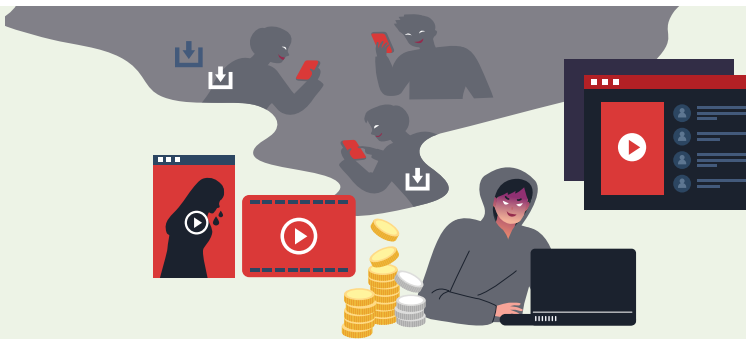
“기대도 될 것 같고, 안아도 될 것 같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믿음이 깨져가는 과정이 연애지” <멜로가 체질>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명대사가 뜰 정도로 인상 깊은 대사가 많다. 멜로의 기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낮간지럽고 로맨틱한 대사가 아닌 솔직한 대사는 나이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어른이 아닌 20~30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멜로가 체질>은 PPL마저 달랐다. 매회 여주인공들은 하루의 끝에서 PPL인 맥주를 마시며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처럼 PPL을 숨기지 않고 대놓고 연출해 개그 소재로 사용하며 이 드라마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고 재미와 매력을 높여주는 포인트로 작용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맥주를 마시며 보고 싶은 드라마이다. 각각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등장인물들, 잔잔하고도 재미있는 스토리, 동감되는 대사들은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난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성장 중이야”라고 말하며 여러 이유로 지쳤던 하루를 치유한다.

/김기중 기자

Photo 포토에세이



인간이 만든 N개의 사이버 지옥

안일한 처벌이 낳은 악의 연대기

SNS 익명의 그늘에서 기생하다가 비로소 수면 위에 떠오른 N번방 사건. N번방의 끔찍한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N번방은 절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소라넷, 다크웹,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독방 사건까지. 우린 이미 수없이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보고 경험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언론에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소라넷의 후예들

N번방 사건은 해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1번방에서 8번방까지 늘어난 방들은 N번방이라고 불리게 되며, 이 방들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착취·강간 등을 일삼았다. N번방의 창시자 ‘갯갯’을 이은 ‘와치맨’과 그리고 ‘박사방’을 개설한 조주빈까지. 이들은 익명의 그늘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에서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범죄를 이어갔다. 또한 ‘와치맨’은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쩌서 재판부에 넘겨졌던 소라넷의 후예들이 N번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일까?

법이 지켜준 가해자들

소라넷은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업로드되는 음란물 유포사이트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이 업로드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실시간으로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도 공유되었다. 2016년,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검거되었고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불법도박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라면 종신형에 처했을 만한 그에게는 고작 징역 4년과 ‘범죄수익 추정금 0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벌이 내려졌다. 또한, 100만 명의 회원을 자랑했던 소라넷의 회원들을 처벌할 것이라 하였지만, 결국 처벌받은 범죄자는 송모 씨 단 한 명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다. N번방의 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2018년에 아동·청소년 유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가 있다.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나라에서는 중형의 처벌이 이뤄지는데 가장 많이 업로드되고 많이 본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 형을, 영상물을 보려고 접근하거나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유포하고 운영한 와치맨은 이보다도 못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이 그를 지켜주었기에 와치맨은 N번방에서 또 다른 영상물들을 유포할 수 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에게,

텔레그램 사건에 대하여 언론이 관심을 두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N번방에 접속했던 남성이 투신하여 자살하는가 하면, 그들은 탈퇴나 접속기록을 지우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본인의 범죄사실과 신상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치부와 나체, 신상 등을 유포하며 즐겼던 것들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 했던 걸까. 우린 언제까지 그들의 범죄를 호기심과 실수로 넘겨야 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N번방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린 조주빈 등의 주요 인물들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 착취물을 소비하고 있는 ‘회원’들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계속하여 ‘소비할 거리’를 요구할 경우 이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소라넷 사건처럼 회원들이 처벌을 피해간다면, 소라넷의 후예들이 N번방을 만들었듯이 N번방의 후예들은 또 다른 N번방을 만들 것이다.

소라넷, 다크웹,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독방, 그리고 N번방까지. 그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이 성범죄의 악의 연대기에서 N번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 법은 과연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에게, 우린 언제까지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할까.

아동 성 착취로 돈 버는 바퀴벌레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
바퀴벌레들을 박멸시킬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 -가수 옥주현

/장선민 기자

The Wisdom of Solomon 23

1918년에 처음 발생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스페인독감(Spanish influenza)은 14세기 중기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린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이 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2020년 4월 24일 09시 기준으로 2,653,573명의 확진자 가운데 189,65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스물세 번째 여행을 떠나 보자. 솔로몬은 건강과 장수의 비결(The Secret of Health and Longevity)에 대해 얘기한다.

My son, do not forget my teaching, but keep my commands in your heart, for they will prolong your life many years and bring you prosperity.

내 아들이,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 내 계명을 네 마음에 새겨 두어라 / 그러면 그것들(명령)이 네 생명을 여러 해 연장시켜 주고 / 너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 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잠언 3:1-2)

[어휘]	keep in one's heart	명심하다	prolong	늘이다, 연장하다
	command	명령	prosperity	번영, 번창

본문에서 두 동사가 보인다. 첫째, ‘잊지 말라’ 즉 ‘기억하라’는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전의 실수를 기억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둘째, ‘지키라’ 즉 ‘간직하라’는 것이다. 법과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기 화하라는 의미이다. 좋은 가르침이 ‘좋은 외부 대상’으로서 내면화되면 ‘좋은 자기’의 일부가 된다. 좋은 가르침을 잘 소화하면 초자아 또는 양심이 발달한다. 따라서 타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간이 되며 겸손한 인간이 된다.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으로 장수와 평강이다.

영어 표현 중 “인생은 B에서 D까지다”는 말이 있다. B는 탄생(birth), D는 죽음(death)을 의미한다. 그리고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C는 선택(choice)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반복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만들어 돈을 벌려는 인간들의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현대인의 희망 중 으뜸은 오래 사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이다. 장수의 축복은 탐욕을 줄이는 것이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은 마음의 평강에서 오는 것이다.


교양교육원 안남용 교수

도서관소식

| 신간안내 ※ 이외의 다양한 신착도서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타인의 해석
말콤 글래드웰



굿 라이프
최인철



아무튼, 메모
정혜윤




마케터의 문장
가나가와 아키노리



1cm 다이빙
태수, 문정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제레드 쿠니 호비스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임이랑



문을 열면
오사기 고즈에



멀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신미경



모월모일
박연준



호스 댄서
조조 모에스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활용 안내**
대전보건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도서관 방문없이 모두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대학공공 동영상 강의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공개한 강의 동영상 서비스로, 학과별 강의, 직무기초강의, 직업방송강의 제공
학술DB	전 주제 분야의 학술논문을 원문형태로 제공하는 학술데이터베이스
전자책	· 국내에 출간된 다양한 분야의 전공 및 교양자료 제공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 통해 이용 가능
북러닝	어려운 비즈니스 서적부터 자기관리, 라이프스타일 등의 도서를 해설해주는 도서해설 콘텐츠
오디오북	· 귀로 읽는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 통해 이용 가능

독자참여퀴즈

- 2020년 우리대학 명예교수로 위촉된 세 분의 성함은? (2면 참조)
- 우리대학 관리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한 물품은? (3면 참조)
- 교양 과목 ‘영어 회화’ 콜린 넬슨 교수의 반려견의 이름은? (4면 참조)
- 최근 공연계에서 코로나19로 대면접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관객가 소통하는 문화는? (4면 참조)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어떻게 강화되었나? (5면 참조)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의 명칭은? (5면 참조)
- 종영 후 ‘넷플릭스’를 통해 역주행한 드라마의 제목은? (6면 참조)
- ‘인간이 만든 N개의 사이버 지옥’ 기사에서 기자가 생각하는 악의 연대기의 이유는? (6면 참조)
- 이번호 청년정책기사에서 소개된 정책은? (6면 참조)
- 이번호 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순우리말퀴즈

‘등결잠’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자는 잠
- ②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자는 잠
- ③ 옷을 입은 채 아무 데나 쓰러져 자는 잠
- ④ 마음을 놓지 못하고 조바심하며 자는 잠

/김기중 기자

<지난호 퀴즈 정답>

1. 5년
2. 우라와 학원
3. 스투키
4. COVID-19
5. 긴급수급조정조치

<순우리말 퀴즈 정답>

2. 비가 내리기 시작 할 때
성기게 떨어지는 빗방울

<지난호 정답자>

안경광학과 2학년 최윤서

치위생과 2학년 임누리

간호학과 1학년 송영진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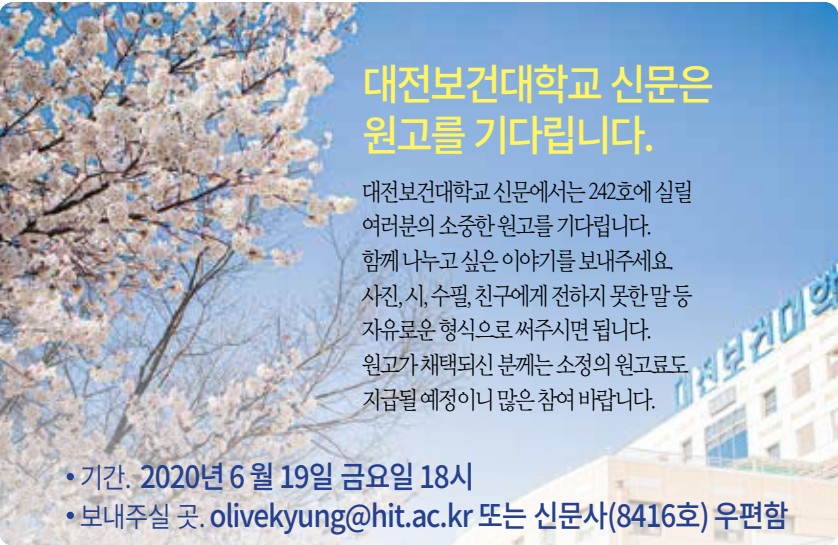
학년

이름

연락처

퀴즈는 **신문사 앞 '독자참여함'**과 **'대전보건대학교 HIT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니 정답과 함께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LINE21상품권을 지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에서는 242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진, 시, 수필,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말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18시

• 보내주실 곳. olivekyung@hit.ac.kr 또는 신문사(8416호) 우편함

<그림에도 봄은 돌아온다>

코로나 블루,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말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기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감염에 대한 공포는 국민을 집안에 웅아매었고, 초·중·고와 대학교의 개강 연기, 재택 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립감, 사회적 단절감과 무기력함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신체적인 질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환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다.

코로나 블루, 쉽게 넘어가야 하는 문제일까?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육성필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에 빠진다는 코로나 블루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클 것을 우려해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의 내용은 대부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안하다”, “감염될까 봐 너무 무섭다”, “화가 나고 이 상황이 원망스럽다”,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죽고 싶다” 등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을 겪으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나도 혹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자가 진단법	<div><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감염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div> <div><input type="checkbox"/> 수면장애를 겪는다.</div> <div><input type="checkbox"/>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한다.</div> <div><input type="checkbox"/>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느낀다.</div> <div><input type="checkbox"/> 두통·소화불량·어지러움을 느낀다.</div>
------------------	---

지금의 상황은 누구라도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난 상태의 장기화와 그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은 당연히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우울감을 느끼며 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음 건강지침을 따라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내 보자.

[마음 건강지침서]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자.

2. 가짜 뉴스는 그만!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고 반복적인 뉴스 확인은 잠시 내려놓자.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혐오는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인신 공격과 신상 노출은 감염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으니 상처를 주는 행동을 피하자.

4.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활동 제한은 외로움, 소외감으로 찾아온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서로를 격려하자.

5.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자. 활동 제한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정신건강을 지키자.

(출처: 국가 트라우마센터)

모두가 지쳐가는 상황.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겨울에 멈춰 얼어붙어 있지만, 오늘도 하늘이 맑고 벚꽃이 만개하였듯이 봄은 온다. 절망 대신 희망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마음 가까이 두기’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 070-5067-2619 / 070-5067-2819

/장선민 기자

코로나 경제,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환불대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에선 ‘환불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국내외 여행도 취소하고, 음식점도 취소하지만 엄청난 위약금과 수수료 때문에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생겼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피해 건수가 수십만 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대비8.1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환불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칙을 제시한다.

| 회사별 특별 규정을 확인하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맞춰 특별 환불 규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아닌 곳도 있기에 제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호텔스닷컴 등은 2월 25일 이전 호텔스닷컴을 통해 예약한 3월 31일 이내 체크인 예정건은 취소 수수료가 없이 100% 환불할 수 있고 익스피디아는 2월 25일 이전 결제하고, 이달 31일 이내에 숙박 예정인 숙소 예약건에 한해 환불해 준다. 단, 호텔스닷컴과 마찬가지로 사전 취소 없이 당일 숙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와 외교부가 여행자제 단계를 발령한 국가 여행상품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렇듯 각 회사나 여행사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회사의 공지사항을 주시하며 정보를 파악하고 여행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종 여행사와 항공사의 실시간 환불 정책부터 현지관광 통제정책까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 계약서상 위약금 약관을 살펴라!

계약서상 꼭 따져봐야 할 문구가 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명시되어 있으면 항변하여도 환불받기 어렵다.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 해당한다. 코로나19는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회사의 재량이다. 가급적 일찍 예약을 취소해라. 통상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 보호기관의 도움을 얻어라!

만약 환불받기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기관을 이용하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운영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되어선 곤란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협박 환불 방법이 돌고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협박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분노로 해결하는 것보다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부탁하는 것이 좋다. 환불 관련 문제 이외에도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를 알아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 70% 미만인 가구 14,000여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 부양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는 지역마다 혜택과 지원금이 다양하다. 대전시는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 대전형 재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으로 4월 6일(월)부터 5월 31일(일)까지 받고 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월 20일(월)부터 5월 29일(수)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정부지원혜택가구, 긴급복지수급자 중 생계 지원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 금액은 홈페이지를 기준표를 참조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0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제외/ 동거인은 별도 가구 인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경제가 꽁꽁 얼어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멈췄고, 그에 따라 상권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언젠가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향해 걸어들 것이다.

/이현선 기자

